"교직원수련원 부지 선정 주먹구구식으로 실시"

최영일 도의원 "부지선정심의위 거치지 않고 내부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추진단 조성 재검토 필요 부안군이 수련원 부지 가격 높게 요구하면서 난항"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편중 현상이 부각된 가운데 부안군 변산에 들어설 교직원수련원 부지선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2일 "도내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복지향상을 위해 교직원수련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2년 수련원 부지선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교직원수련원을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제집 식구 추진단'을 만들어 주먹구구식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물론 당시 부지선정심의위가 없어 내부공무원들로 이뤄진 추진단이 진행하고 전북대학교에서 부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지만 이들 모두 '제집 식구들의 짜고치는 행정'으로 도교육청이 밀어부쳤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영일 의원은 "당시 사업비 350억원 중 122억8,000만원은 교과부 특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재원과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부안군에서 부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면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부지 선정을 질타했다.

특히 변산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수련원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부안군이 오히려 수련원 부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등 도교육청을 옭아맸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련원을 설립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됐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제공했어야 했다"면서 "도교육청 행정이 그 이후로 부지를 수차례 바꾸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부안군은 3.3㎡ 당 150만원(총 70억원)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사에서 타당성과 규모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재검토를 통보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수련원 유치에 관심을 보였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수련원 설립에 어찌된 영문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근까지 설립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역편중도 문제지만, 교육시설 부지 선정을 '나 홀로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시설 선정에 민·관·학들이 다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시설이 도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최고위원 당선돼 전북 정치 위상 올릴 것"

민주 한병도 의원,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주요 현안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22일 "최고위원에 선출돼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여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 지난 2010년 당시 정세균 최고위원 이후 10년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며 " 전북 정치를 대표하라는 지역 동료 국회의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당이 정부, 청와대 등과 한팀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면서 "정무수석 경험 등은 최고위원 득표에 최적의 위치이자 자신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주 특례시 지정, 익산 인구 유출, 군산 고용 위기 등 주요 현안을 뻥 뚫는 역활을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승리하겠다" 면서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는데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5명을 뽑는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도의회 문건위,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2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정읍시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 현장 사무소와 육교 철거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건위원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육교 철거 후에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으며 육교 철거와 지하차도 확장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읍시, 철도공단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육교 철거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위원장 선출 세칙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북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일은 27일로 확정했으며 경선으로 선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로 진행된다.

또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8월 5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는 8월 6일에 실시되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8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되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 투표는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상무위원회 대회장에서 추대한다.

한편 도당 상무위원회는 8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개최되며, 1부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과 2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역 현안 해결 ·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

송지용 도의회 의장, 민주 한병도 의원과 면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2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특히 탄소산업진흥원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새만금공항 개항 등을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도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들고, "전주 특례시 지정과 익산 인구소멸 대책 마련, 군산 경제 회복 등 지역별 차별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불륜설'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의원직 박탈

불륜설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제시의회의 한 여성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의원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당사자인 A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A의원은 제명 직후 의원직이 박탈됐다.

앞선 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A의원과의 불륜설을 인정하는 B의원이 제명됐다.

B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해 A의원과의 관계를 폭로했고, 최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정례회 등에서도 A의원과 마찰이 빚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